

亞洲大學校, 그 現在와 未來像



金 孝 圭
(亞洲大 總長)

I. 設立부터 現在까지

1. 設立經緯와 沿革

1965년 6월 28일 韓·佛 兩國間의 文化 및 技術協力에 關한 協定이 체결된 이후, 구체적 技術協力の 첫 사업으로서 1969년 4월 16일 朴忠勳 副總理(現 理事長)와 Ortoli 佛蘭西 經濟長官 間에 韓·佛 技術系大學 設立에 關한 基本方針을 協定하고 1971년 12월에 技術系大學 設立을 위한 協定이 署名發效됨으로써 韓·佛 양국간 共同出捐에 의한 本大學의 設立 根據와 基本計劃이 확정되었다.

1973년 3월 15일 機械, 電子, 發酵化學, 工業經營 등 4개 학과 280명 정원의 亞洲工業初級大學으로 개교하여 이듬해에는 480명 定員의 4年制 亞洲工科大學으로 승격하였다.

1977년 2월에는 1회 卒業生 94명을 배출하였으나 당시의 支援財團인 裕信學園의 經營困難으로 大學運營이 1977년 3월 22일 學校法人 大宇學園에 인수되었다.

大宇그룹 金宇中 會長은 私財 50億원을 出捐, 사회 各계의 德望 있는 人士로 法人을 구성하고 大學經營과 財團을 분리함으로써 私學으로서는 유례 없는 大學의 自律·自治를 보장하여 進전한 私學發展의 모형을 實現,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1년 3월에는 3개 單科大學 10개 學科로 구성된 綜合大學으로의 昇格과 더불어 大學院(機械·電子·化工分野 碩士課程, 定員 80명)이 신설되고 1985년에는 夜間部 碩士課程인 産業大學院이 개설되었으며 710명의 學士와 27명의 碩士를 배출하였다.

2. 現況 및 特徵

亞洲大學校는 京畿道 水原市 遼川洞 일대 13萬여 평의 敷地에 캠퍼스 시설로 18,000여 명의 建物面積을 갖고, 工學系를 중심으로 人文·社會科學, 理學, 經營學 등의 분야에서 教育·研究 活動을 통해 국가사회의 發展에 기여하고 人才養成을 하는 곳으로서 現제 學生數 4,928명, 教授 113명(博士學位 所持率 66.2%)의 비교적 小規模인 綜合大學이다.

1985년 11월 30일 現제 本大學校 主要 指標에 해당하는 數字는 <表 1>과 같다.

짧은 歷史와 격변하는 周邊環境 속에서 本大學이 現제에 이르는 동안 이룩한 括目할 만한 發展相은 다음과 같은 特徵들로서 부각된다고 하겠다.

첫째, 內實을 다져온 알찬 教育內容과 教育環境의 조성 그리고 正道와 原則에 입각한 學事運營을 통해 신뢰하고 신뢰받는 民主市民으로서의 資質과 素養을 實踐的·體驗的으로 培양토록 함

〈表 1〉 亞洲大學校 現況

| 설립년도 | 단과대 수 | 대학원 수 | 학과 수 | 교수 수 | 학생 수 |
|---------------------|-------------------------|-----------------|------|------|-------|
| 1973 (1981년 종합대) | 4 (공과 문리영 경사회) | 2 (일반 산업) | 20 | 113 | 4,928 |

| 실험·실습 시설 | | | 장학금(교내) | 도서관 | | |
|----------|-------|------|------------------|--------|---------|------|
| 종수 | 접수 | 금액 | | 열람실 | 장서 | 학술지 |
| 1,178 | 4,600 | 29억원 | 917백만원 (983명) | 1,580석 | 83,000권 | 514종 |

| 연구비 (1983-85) | | | | 졸업생 취업 현황 | |
|---------------|--------|------|--------|----------------------------|-------------------------------|
| 교내 | | 교외 | | 1985 졸업 ('85. 3. 1 현재) | 1986 졸업예정 ('85. 11. 1 현재) |
| 과제 수 | 금액 | 과제 수 | 금액 | | |
| 55 | 144백만원 | 69 | 429백만원 | 66% | 45.4% |

으로써 知性과 德性을 고루 갖추도록 하여 各 專攻分野에서의 확고한 基礎實力은 물론 國家社會發展에 이바지할 수 있는 人才를 양성한다는 뚜렷한 教育目標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高等教育機關들이 저마다 독특하고 個性 있는 教育의 場을 펼치고 이들이 적절히 조화되고 결집됨으로써 결국 國家發展과 나아가 人類文化 繁榮의 原動力이 될 것은 自명한 일이다.

本 大學이 정립해 온 나름대로의 基本 教育體系는 이런 精神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다.

둘째, 學問에서의 秀越性 추구이다.

教育의 內質은 바로 심오한 研究의 내용이 바탕이 되고 탐구적 정신과 그 過程이 교육활동에 피드백됨으로써 더욱 活性化되고 다져질 수 있기 때문이다.

研究活動의 조장을 위한 雰圍氣 형성, 이를 위한 支援行政 體系의 구축, 制度的 백업 등으로서 研究를 통한 교육의 內質과 社會奉仕, 국가 발전에의 기여가 바로 현재 本 大學 精神의 主流를 이루고 있다.

셋째, 건전한 私學運營의 모델을 실현하고 있는 大學이다.

企業利潤의 社會還元과 產學協同의 구체적 실

현을 통한 先進國家에로의 발전, 汎世界的 文化技術 交流에 이바지하기 위해 1977년에 설립된 學校法人 大宇學園은 經營分離 원칙하에 대학 운영의 自律을 보장함과 동시에 막대한 財政支援을 계속함으로써 우리나라 私學發展의 總鑑을 이룩하고 있다.

네째, 教授들의 教育·研究에 대한 資質 향상으로 秀越性 추구를 위한 單반의 態勢確立에 주력하고 있다.

開校 이후 현재까지 65명의 教授要員이 派佛되어 현재 30여 명의 교수가 學位取得 후 귀국하여 教育과 研究에 증사함으로써 명실공히 理工系를 포함한 佛語圈 學者 집단으로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教育·研究 및 技術交流의 場을 형성하고 있다.

다섯째, 學生에 대한 關心과 配慮에 특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一般 教育課程에서의 끊임 없는 改善 補完은 물론 學生生活, 獎學金 受惠 확대, 現場實習, 海外 研修 프로그램 실시, 특히 卒業豫定者에 대한 적극적인 就業輔導活動 등 社會의 公器로서의 役割과 大學本然의 使命에 충실히 그리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II. 跳躍의 意志

1. 建學理念의 再定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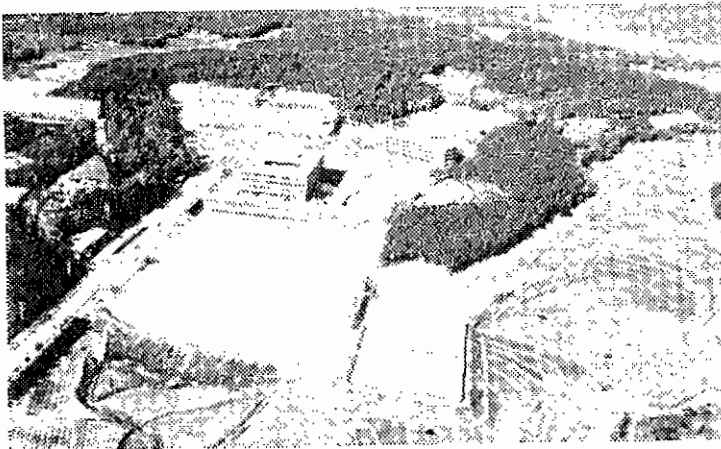
韓·佛 文化 및 技術協力과 交流를 旗幟로 설립되었던 初級大學 당시의 設立目標은 1977년 大宇學園 설립과 1981년 綜合大學으로의 성장 발전에 따라 시대와 상황에 따른 補完을 거쳐, 亞洲大學校도 이제 21世紀를 내다보며 世界 속의 大學으로 應비해야 할 時點에 와 있다.

옛 것이라 해서 무조건 버리는 輕妄과 새 것이라 해서 모두 배척하는 固執을 떠나 溫故知新의 知慧로써 새 歷史를 창조해 가는 선구자로서 大學의 役割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科學文明의 발달은 상대적으로 人間性의 疏外 現象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고, 國際競爭의 加熱化는 利害集團間의 摩擦과 葛藤을 불러일으켜 人類 國家 社會에 새로운 秩序와 調和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를 비롯한 賦存資源의 貧困을 高級技術과 情報 그리고 頭腦로써 극복하고 先進隊列에 나서야 하겠다는 國家的 命題가 우리의 挑戰을 기다리고 있다.

社會正義와 民主精神이 충만된 自由·自律과 더불어 機會가 균점되고 豊饒와 浪漫이 구가되며 生命의 尊嚴性이 최대로 보장되는 未來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의 開拓과 創造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亞洲大學校의 建學理念도 이

▼ 규모는 비교적 작은 綜合大學이지만 質과 量의 조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런 시각에서 再照明되고 있다.

2. 大學의 特性—道具와 手段

대학의 評價는 결국 교육과 연구의 質로써 가능되며 그 特性도 設立目標과 時代的 要請에 가장 잘 부합되는 人才를 양성하고 최고의 眞理와 生産·應用性에 임각한 研究結果를 어떻게 추구해 나가는가 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교육에 있어서는 단순히 專門性보다는 德性의 바탕 위에 創意性·應用性 그리고 국제적 活動能力과 尖端情報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즉 사회 발전에 指導의 役割을 할 수 있는 人才 배양에 초점을 두어 教授確保, 敎課의 改革, 敎育 운영 및 方法의 改善 등이 추진되고 研究에 있어서는 人文·社會科學을 위시하여 基礎·應用科學에 이르기까지 產學協同을 基本으로 한 연구의 秀越性·適合性 그리고 效率性을 추구함으로써 本大學의 特性이 더욱 부각되어 나갈 것이다. 自律을 바탕으로 이런 活動이 더욱 조장되도록 施設·制度·財政支援를 굳건히 할 수 있는 財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도 本大學이 갖는 特性의 하나이고 未來를 보다 밝게 전망할 수 있는 原動力이기도 하다.

3. 發展 構想

발전의 出發은 현재이고 따라서 過去와 現在의 傳統과 狀況을 바탕으로 몇 가지 構想을 記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규모는 量과 質의 葛藤을 최소화 하여 조화를 이루며 施設 및 管理運營의 效率이 適正水準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學部 學生數 10,000명, 大學院 生數 2,000명 정도로 教授 대 學生比가 30:1 수준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基礎科學의 研究와 더불어 產學協同 등 研究中心의 활동과 政策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의 內實이나 국가사회에

대한 奉仕도 創造的 研究活動으로 加速·深化될 것이며 대학이 갖는 資源의 效率的 配分도 이런 觀點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大學의 秀越性도, 未來에 대한 올바른 方向提示도 최고의 研究 結果로부터 얻어질 수 있으며 또한 大學의 生存競爭도 이에서 判 가름날 것이기 때문이다.

세째, 學部教育은 출연 재단의 教育理念을 바탕으로 하여 民主市民으로서의 指導的 力量과 德性을 갖춘 人間教育이 先行되어야 하며, 일시적 專門性보다는 適應 能力과 問題解決의 能力을 길러, 다양화하고 급변해 가는 現代社會에 폭 넓게 대처할 수 있는 基礎를 닦는 데 주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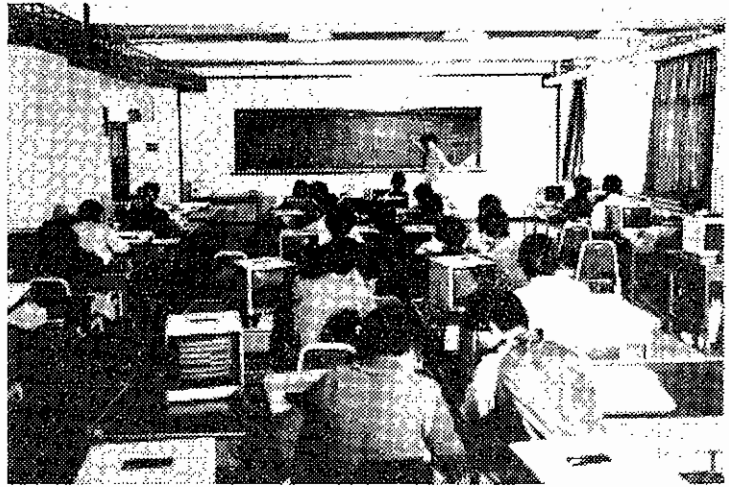
體驗을 통한 살아 있는 教育, 國際情報社會를 主導해 나갈 表現能力 그리고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터득하고 실행하는 教育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네째, 위와 같은 教育·研究의 과정과 결과는 國家社會의 發展에 원동력으로 순환되어야 한다.

技術의 高度化와 文化의 暢達로 產業과 地域 社會를 보다 중요롭고 윤택하게 하여 개인의 成就動機는 물론 大學 자신의 發展方向과 意志가 스스로 다져질 수 있기 때문이다.

Ⅲ. 發展計劃과 推進

현재 發展構想을 중심으로 成案中에 있는 發展計劃은 21世紀를 조망한 基本計劃을 바탕으로 短·中·長期의 단계별 學事·施設·運營計劃으



▲ 알찬 교육내용과 專門教育을 위한 電算實習

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다시 年次別 施行計劃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연차별 發展目標의 達成을 위해서 한정된 私學財源(人力, 施設, 資金)의 활용을 伸縮性 있게 극대화하면서 豫算의 편성과 집행에 發展意志를 보다 강력히 速繫시키고 財國의 支援擴充과 적절한 外部手段의 導入이 추진될 것이다.

大學의 發展計劃과 그 意義는 大學 構成員들이 和合的 開放性(open mindedness)을 갖고 자유로운 教育·研究環境 속에서, 적극적으로 眞理探究·人才養成·社會奉仕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가고, 이런 活動이 충만되고 지속적으로 延綿하게 될 때 그 眞價가 드러날 것이다.

亞洲大學校는 바로 이러한 특색이 터전이 되어 韓國 속의 大學에서 世界 속의 大學으로 그 위치와 面貌를 일신해 나갈 것이다. *